

제9회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

특별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채상희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경전등의 해석은 여러 큰스님들이나 학계의 교수님들의 영역이라 사료 되어 감히 언급을 피하고자 합니다. 오로지 부처님을 믿으며 사랑하고 기도 정진하는 불자로서 그 동안 살아 오면서 알게 모르게 입은 부처님의 무장무에 한 가피력을 진솔하게 여러 불자들에게 알리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히 몇 자 적어 봅니다.

혹여 제가 너무 무속적인 가피력 위주로 물고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만 모든 종교의 근본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기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우리 인간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며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한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는 초보적 단계의 종교생활이지만 대부분의 시작은 그곳에서 전개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의 공부는 자신의 근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제게 무수히 많이 일어난 가피나 느낌을 어떻게 하나 하나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조금 힘이 들더라도 일어난 순서대로 자세히 이야기 하려 합니다.

저의 큰 아이가 태어나지 6개월 전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저의 남편과 함께 어느 사찰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던 날이 장날인지 그 날 바로 그 곳 주지 스님께서 열반을 하셨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님을 언덕 위 동굴에 안치하여 놓으셨다고 하시며 그 곳을 엄격히 통제 하셨습니다. '아니, 평소에도 아니고 스님께서 열반을 하셨는데 그냥 가던 것이었어? 인사라도 하고 와야지'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 동굴 안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들어서니 들어간 스님께서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어! 스님께서 돌아가셨다니... 거짓말인가?' 하고 보니 그는 다름 아닌, 6개월 된 제 아들이었습니다. '애는 서울 집에 내가 두고 왔는데...너



그림·김홍인

빛장빠 산산조각 난 아들 수술 성공률 20% "부처님 살려주세요" 일심으로 다라니 주력

왜 거기서 나오니'하며 아이를 받는 순간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지는 듯 크게 "광"하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깨어 별책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기절하여 까무라 칠 것 같았습니다. 배밀이를 한창 하던 아이의 머리 옆 벽에 걸어 놓은 전지 크기의 액자가 떨어져 시멘트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액자는 유리 하나 깨지지 않았으며 아이는 그대로 편안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 날수 있을까요? 만 아저 조금만 염으로 떨어졌더라면, 아이의 머리는...

저는 별책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곧 "관세음 보살"을 염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으리까 라며. 저의 신앙 세월은 계속되었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던 3월 2일! 또다시 시련이 다가왔지요. 아이는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하였는데 그날은 사부님과 겨루기를 하다가 다쳐서 빛장빠가 산산조각이 나서 살을 뚫고 나오는 커다란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오른쪽 어깨가 축 늘어져 있으며 아파서 죽을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 세상에 이럴수가... 아이는 곧바로 삼성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고 살을 뚫고 튀어 나와 행여 할 수가 없었지요. 의사들은 아이를 광공유에 놓고는 수 차례 의논을 하더니 수술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튀어 나온 뼈 때문에 그대로 두면 살이 썩어 들어 가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수술만이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난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뼈와 뼈를 볼트, 너트로 연결한 후 두 달 후에 다시 재 수술을 하여 뼈를 내는데 80%정도는 뼈가 붙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였으며 이 아이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공할 수 없는 수술을 하여야 하며 하지 않으면 살이 썩어 들어 간다... 세상에 이러한 날벼락이 어디에 또 있으랴. "부처님, 살려 주세요. 부처님, 살려 주세요." 제 목숨과도 같은 아이를 위해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울며 불며 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밤새워 지송하였으며 눈물에 콧물에 기진 맥진하며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막 알약...' 살려주세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새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도와주세요. 영영 울어 가며 염불 아닌 염불을 하였습다. 전 집에서, 아빠는 병실에서... 우리 두 사람은 오직 일념으로 큰 아이를 살려 달라고 부처님께 매달리고 있었습다. 오후 4시가 수술 시간인지만 의사는 아이에게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실로 데리고 들어 갔습니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하느님도 다 좋습다. 제발 도와 주세요. 제 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요, 피가 타들어 가는 그 많은 시간들을, 어째서 제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옵니까? 보호자 대기실에 우리 나라히 앉아 다라니 염송을 하였으며 그러던 중 비몽사몽간에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더니 너무나 불쌍하시다는 듯 저를 쳐다보시고는 지나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힐러이 수행일기 <하>



박선식 광명사 의뢰기 대표

진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라는 믿음은 지금도 여전하다. 모든 종교 안에 진리가 있고, 이를 표현하거나 궁구하는 양식에 있어서 종교적 틀이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각각의 종교적 전통들을 존중하며 나름대로 효율적인 수행법으로 생각한 화두를 들어 참선을 해오고 있다.

간화선(禪話禪)의 대표적인 '무(無)'자 화두를 들면서 보냈던 처음 1-2년의 세월 속에 종교의 제도적인 틀에서 겪는 소의를 전혀 느끼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해 가며 '무'자와 하나가 되려고 참선정진을 하니 의심이 사라지고 차분한 마음자리가 잡혀 일상 속에서 느끼는 혼란들이 반감되고 있음을 확실히 체험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화두를 처음 들어 정진할 때는 대단한 진리를 깨달아 높은 수준의 정신력을 갖추어 세상을 관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다. 하지만 반복된 입실(入室, 1대일 지도

tival)에서 찾고 있다. 즉 절대자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 존재하는 불가해적 존재이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신을 알 수 없다. 단지 창조주의 속성인 사랑 안에 거할 때 신의 은총에 힘입어 창조주와 합일된다고 보았다. 예컨대 책자 70장에 '본성적인 이해를 중단할 때 더없이 혼연하게 영적 지식에 도달할 수 있듯이 영적인 이해를 중단

'無'字 화두는 일상이며 욕심버리는 일 "놔 버려라" 되뇌이며 하루 일과 시작

점점의 통해 다듬어지고 점차 올바른 수행의 길을 알게 되자, '무자' 그것은 바로 나의 일상을 말함이요, 헛된 욕심을 버리는 일이며 단순하고 진실되게 사는 것이요 보다 명백해졌다.

무자 화두에 대한 설명으로 유명한 무문혜가 스님의 평창(評暢, 해설) 서두를 보면, "선을 참구하려면 조사의 관문을 꿰뚫지 않으면 안된다(參禪須透祖關). 깨달음을 얻는데는 심로(心路)가 끊어지는 것을 궁구하지 않으면 안된다(妙悟要窮心路)"라는 구절이 있다. 이러한 심로를 끊어 즉심(即心)에 드는 것이 바로 수행이며 정진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무자 화두를 들어 정진하는 자는 그리스도교 수도원에서 행하는 구도행과도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 (펼치는 청년기에 살레시오수도회 수도자였다). 한 예로서 14세기 영국의 영성을 대표하는 책자 <무지의 구름>을 잠깐 소개한다. <무지의 구름>은 수도원에서 수련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서적으로, 신에 대한 지향을 종전의 경향과는 달리 '부정의 길' (Via nega

할 때 은총을 통해 가장 높은 신의 지식에 도달한다"라고 쓰여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의 중단'이 바로 '심로절(心路絶)'과 같은 의미이며, 무자 화두에 참(參)하는 기본 자세로 이해하며 정진하고 있다. 깨달음(enlightenment)은 실제의 본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에 도달함으로써 실존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어떤 체험이다. 이렇게 볼 때, 인간적인 헤아림과 분별심에 빠지는 것은 심로를 끊지 못하여 더욱 혼란 속에 자신을 빠뜨리는 결과가 된다. 무자 화두에 대한 무문혜가 스님의 설명에서도 머리로 헤아리기보다는 몸으로 체험하기를 언급하고 있다. 즉 "삼백육십 팔경과 팔만사천 열구명을 가지고 전신으로 한 개의 의심 덩어리가 되어 이 한가지 '무'자를 들고 있기를..."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는 흡사 무지의 구름을 향해 정진하는 구도자의 모습과 똑 같은 것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자세로 필자는 '놔 버려라!', 'Let Go!' 라고 되뇌이며 미음을 가다듬고 아침 일찍 방석 위에 앉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이 일어났던 감동있는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연중 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문장: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44줄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hy@buddhapia.com

제6기 참나찾기 선심리치료 명상호흡지도자 모집
◆선 심리치료 명상호흡이카데미 개설의 목적은?
현대인은 물질과 정보문화의 발달로 생활은 편리해졌으나 참나를 잊고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도덕 붕괴와 각종 스트레스(번뇌)와 불안정리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참선과 명상호흡, 정신분석, 선 심리학, 자연대체의학을 활용한 정신심리치유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스로 참나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전문가 양성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최상의 정신심리치유 전문가를 육성하는 불교적 노력을 담아서 '선 심리치료명상호흡이카데미'를 개설했다.
◆교과일정
과정: 3개월, 2004년 3월 20일 ~ 4월 14일(통신교육도 가능함)
양성: 목요일 저녁 7시 ~ 9시, 4월 8일 ~ 6월 24일(3개월)
특수: 수시모집(15명 선착순, 3박 4일, 수련형)
◆특전
1. 한국선심리상담연구원 기립 자격
2. 선 심리치료상담 전회인 '마음의 전화' 개설시 자료 제공
3. 참나 찾기 팔관대 큰 모임(선 심리명상수련회) 참가 자격
(문화관광부 후원 선 심리치료명상수련 프로그램 18회 개최)
◆수강료
20만원(3개월분, 교재비 등 포함, 단, 통신통 3만원 추가됨)
우리은행 달마선원 019-258104-12-501
하나은행 달마선원 379-810048-78107
◆문의 및 수강신청
2004년 3월 20일 ~ 4월 14일(통신교육도 가능함)
(단, 특수과정은 개별방문상담 요망)
TEL : (02) 738-1275 (선리치료), (02) 312-8248 / 9 (F)
H.P : 016-301-4080
* 수강신청과 관계없이 선 심리치료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예약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참나찾기지도자회
부설 한국선심리치료명상호흡이카데미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져나와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법증과 압박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 건강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필수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로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는지 모르겠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몸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록원 (팔보효소)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전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던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정보상태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043-647-2378, 011-467-1472

법안명상기공강좌
법안명상기공을 수련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진화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 5시30분
●초급·중급·상급·고급 각 3개월과정
●명상·사법과정 각 1년
●지도: 보덕현호선사
●수강료: 3만원(월1만원)
●개강: 4월 7일(수) 오후 4시
●접수: 마포문화원 문화학교 서울 마포구 아현동 600-2
●전화: (02)312-1100
●위치: 아현고가도로 마포쪽 아현중학 앞 지하보도 내
법안명상기공회